

“건강은 기본...자신감까지 생겼어요”

광주 유일 광산구 '실버태권도' 인기 운남서 송정·침단으로 권역 확대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광산구에서 운영 중인 '실버 태권도'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웃음을 되찾아 주는 활력소가 되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실버 태권도는 마을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한 '우리마을 상생보건소' 사업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산구가 새롭게 추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광산구보건소가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의 '마을보건소' 이용 어르신의 욕구 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지난해 10월 첫 태권도 교실을 연 이후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광산구태권도협회, 광산구 여자태권도 선수단 등이 전문가 그룹이 직접 나서 태권도 동작, 폼세 등을 지도하고 기초 체력 기르기는 물론 관절 운동 등도 병행할 수 있어 어르신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특히 지르기를 하고, 발차기를 하면서 평소엔 쓰지 않던 신체를 움직이고, 동작을 외우기 위해 생각하고 반복 연습하는 모든 과정이 기억력 향상이나 치매 예방 등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제1기 광산구 실버 태권도단'으로 현재까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주옥(72) 씨는 "태권도를 시작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기분도 좋고, 건강이 좋아진 것은 기본이다. 나이를 까맣게 잊고, 나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처음에도 소극적이었던 어르신들도 시간이 흐를수록 태권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난 22일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열린 승급심사 현장도 어르신들의 열정으로 후끈 달아올랐다.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에서 지난 22일 진행된 실버 태권도 승급심사에 참여한 어르신이 초록띠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첫 승급심사에서 노란띠로 승급한 어르신과 올해 처음으로 태권도를 시작해 '흰띠' 탈출을 노리는 어르신이 한 자리에 모여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냈다. 이 결과 전원이 승급하며 초록띠와 노란띠를 거머쥐었다.

심사 내내 동작마다 함께 기압을 넣으며 서로를 응원한 어르신들은 결과가 발표되자 환호하며 성취의 기쁨을 누리기도 했다.

이날 노란띠를 매게 된 김옥례씨는 "이제 열차기도 그럴싸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면서 "태권도는 나이 먹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미있고, 태권도를 배우는 손자들하고도 어울릴 수 있게 돼 좋다"고 말했다.

실버 태권도 어르신의 목표는 분명하다. 검은띠를 따는 것. 노랑에서 초록으로 승급에 성공한 최암걸씨는 "목표인 검은 띠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가게 됐다"며 "다음 단계인 '홍띠'를 향해 또 열심히 연습해야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광산구는 올해 운남권인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을 비롯한 송정권, 침단권으로 대상 권역을 확대해 실버 태권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어르신들이 체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마을 상생보건소 운영과 연계해 혈압, 혈당 측정 등 기초건강 측정과 건강상담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정권, 침단권은 4월부터 실버 태권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다른 자치구도 광산구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실버 태권도가 광주 곳곳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광산에서 시작한 실버 태권도가 지역 어르신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이제는 자랑이자 자부심이 되고 있다"며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활기찬 일상을 위해 실버 태권도가 더 확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지긋지긋한 주차난 '공유주차장'으로 해결

광산구, 15곳 평균 이용률 64%... '광산행복주차장 앱'서 확인

광주 광산구의 공유주차장이 도심 주차난 완화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29일 광산구에 따르면 도심 곳곳의 주차난, 불법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부족한 주차 공간의 공유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관내 종교시설,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이 10면 이상을 기준으로 유휴 주차공간을 하루 7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3년 이상 개방하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CCTV 설치 등 최대 5000만 원의 시설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광산구가 지난해 5-6월 당시 운영 중이던 공유주차장 15곳의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체 평균 이용률이 64.4%로 나타났다. 이용률이 50%를 넘는 곳도 총 11곳에 달했다.

일부 주변 도로에 주차가 가능한 시설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저조했으나 전반적으로 공유주차장이 주차 공간 부족, 불법주차 및 교통안전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운영 기간 종료 후에도

무상으로 개방하기로 하는 등 자발적인 주차 공간 나눔, 공유에 동참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광산구는 공유주차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올해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참여 시설을 모집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모는 28일부터 4월 28일까지 진행된다. 또 공유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실태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광산구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정보는 주차정보플랫폼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과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확인 가능하다.

광산구는 '광산시민행복주차장' 앱과 공유주차장의 연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앱 서비스 개선, 주차장 정보 정확도 제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방 중인 공유주차장에 대한 점검과 운오프라인 홍보도 강화한다. 3월 현재 운영 중인 광산구 공유주차장은 13곳으로, 올해 상반기 중 2곳이 개방할 예정이다. 공유주차장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교통지도과(062-960-8988)에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문화관광 연구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관내 역사문화유적지를 현장학습하고 있다.

광산구의회 문화관광 연구회, 유적지 답사

월봉서원·윤상원 열사 생가·박피의병마을 등 4곳 둘러봐

광산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산구 문화관광 연구회'는 지난 24일 관내 역사문화유적지에 대한 현장학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현장학습은 연구회 대표의원인 정재봉 의원을 비롯한 김명수·박현석·김영선·박해원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월봉서원, 윤상원 열사 생가, 송천 양용정 선생 묘소, 박피의병마을을 양씨 삼강문을 답사하고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특히 현장을 둘러보며 유적지의 관리 실태를 점검한 후 문화해설사의 해설을 청취하며 문화유적 활용 사례를 학습하는 등 문화관광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정재봉 대표의원은 "이번 답사는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에 대한 가치를 깊게 이해하고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해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던 좋은 기회였다"며 "논의한 의견을 토대로 관내 문화재와 관광 인프라를 연계하여 광산구의 고유의 유적지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산구의회 '광산구 문화관광 연구회' 연구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광산구 역사문화유적과 연계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연구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광산구 복지서비스 한눈에 '맞춤형 복지 정보' 책자 발간

광주 광산구는 "복지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정보'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책자는 ▲복지서비스(임산·출산 정책, 영·유아복지,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저소득층 지원, 의료 지원, 기타 복지서비스) ▲일자리·창업지원 정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현황(출생-사망) ▲사회복지시설 현황 정보를 담고 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정책, 제도 등도 꼼꼼하게 반영했다. 급증하는 일자리 수요를 고려해 관련 정보를 쉽게 빠르게 찾아볼 수 있도록 '일자리 및 창업지원' 정보 안내 분야를 신설했다. 광산구는 책자를 각 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및 통장·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 실시

광산구, 소득 제한 없이 12억 이하 주택 감면... 최대 200만원

광주 광산구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환급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확대 조정하고, 주거 안정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전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대상,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3억 원 이하 주택은 50%를 감면했으나, 개정 후에는 연 소득 제한 없이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자에 대해 최대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범위를 확대한다.

이번 감면 확대 조항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자부터 소급 적용되며, 2025년 말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한다.

중전 규정으로 이미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감

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343명의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작금 환급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주택 취득세를 납부한 2683명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 여부를 확인 후,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면요건,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세무2과(062-960-8155)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감면 확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산업단지 시행자 및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기간 연장 등이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환급 대상인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 신속한 환급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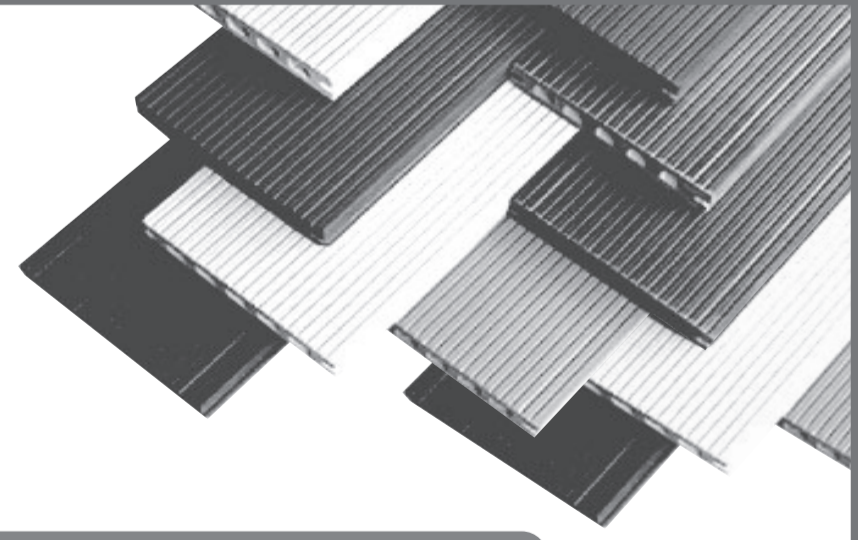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